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11일 (음력 3월 26일) 금요일

## 세월호 참사 4년 여만에 '바로세우기' 성공

### 조사위·현대삼호중공업, 94.5도 직립 성공...3시간 10분 걸러

### 미수습자 수색·4층 선수 좌현 구역·사고원인 등 조사 속도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다 침몰했던 세월호가 참사 4년만에, 육지로 올려진 지 1년여만에 바로세워졌다.

〈관련기사 2면, 8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직립 용역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은 10일 오후 12시10분 세월호를 당초 계획했던 94.5도까지 직립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날 오전 9시부터 바로세우기 작업을 시작하자 3시간 10분 만이다.

세월호 직립작업은 준비작업을 거쳐 5→10도, 10→40도, 40→60도, 60→90도, 90→94.5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졌다.

작업은 전날 40도까지 들어올린 예행연습 후 선체를 바다에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8도가 올려진 상태에서 시작했다.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조인 만조시간과 겹치면서 당초 예상했던 5도 보다 3도가 더 올려진 것이다.

풍속 점검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2분 후 10도에서 점검을 위해 작업은 잠시 중단됐다.

당시 크레인의 하중은 3000t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40도까지는 33분에 올려졌다.

40도 이후부터는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단계로 뒤쪽 쇠줄에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작업의 속도가 늦어졌다.



10일 오후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했다는 선언을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가 하고 있다.

60도까지는 10시37분, 90도 11시58분, 12시10분 94.5도로 올려지면서 모든 작업은 마무리됐다.

세월호 선체가 94.5도까지 세우는 이유는 인양 당일부터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져 있어 수평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선조위는 밝혔다.

측은 밝혔다.

세월호 직립은 좌현으로 누운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 1만 규모의 해상크레인 과 연결된 쇠줄로 뒤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선체 바닥면과 왼쪽에 'L'자 형태의 철제 빔 66개를 설치했으며, 해상크레인과 128개의 쇠줄이 연결됐다. 선조위는 앞서 9일 세월호를 40도까지 바로세우는 예행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선조위는 세월호 직립에 성공함에 따라 그 동안 미수습자 수색 작업시 들어가지 못했던 기관구역과 4층 선수 좌현 구역에 대한 수색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통상의 재난이 아닌 국가적이고 사회적 재난으로 참사와 대형재난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직립을 추진했다"면서 "남은 기간 선조위는 미수습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직 들어가보지 못한 기관구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차질없이 임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체가 바로세워지면서 그 동안 감춰진 좌측 외벽도 민낯을 보였다. 좌현의 대부분은 짙은 녹덩어리로 뒤덮여 있었다.

부식이 급속히 진행돼 일부 철판은 찌릿 찌릿 구멍이 뚫려 있었다.

조타실 옆은 철판이 짓눌려 찌그러졌으며, 내부 잔존물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판이 터져 버린 곳도 목격됐다.

하지만 좌현 외벽에서 외부충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봉우 기자



특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9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대상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과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김·경도 당연히 특검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에 쫓겨 면죄부주는 특검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과 민생을 달하지 않았지만 잘하지 않은 일들은 특검법 통과 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조건부 수용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선 "민생을 위해 시급한 법안 예산은 국회를 언제든 열어 철저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김경수



유승민



최미규 기자

## 국민 10명 중 6~7명 "5·18 역사인식 개선·왜곡 처벌 필요"

### 5·18기념재단 여론조사... "가치 훼손 처벌" 62.2% 필요

국민 10명 중 6~7명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5·18을 비방·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나우앤뷰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5·18인식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5·18에 대한 국민 역사적 인식 수준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4.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4.9%, '보통'은 20.5%로 조사됐다.

5·18에 대한 '훼손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5.2%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7.5%에 불과했다.

이에 '5·18 가치를 훼손(비방·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질문에 62.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통'과 '필요하지 않다'는 각각 23.1%, 14.7%로 나타났다.

5·18 진상규명 자료 공개'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각각 79.7%, 66.7%가 동의했다.

응답자 중 54.5%가 5·18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잘 이뤄졌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3.3%가 '그렇지 않다', 7.1%는 '그렇다'고 답했다.

5·18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각 58.1%, 56.0%였다.

5·18에 대한 국민인식지수는 69.8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3.2점 높았다.

국민인식지수 항목 중 5·18 민주화운

동의 인지도가 69.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8 민주묘지 63.3점,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59.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18의 이미지는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 82.3점으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 81.7점 등으로 조사됐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5%에 불과했다.

기념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기념사업의 적절성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인식조사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다.

최미규 기자

The 19th 2018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기간 2018.5.18(금) ~ 5.20(일)

장소 황룡강변(공설운동장) / 홍길동 테마파크

KBS 전국노래자랑 5.19(토) 오후 1시 본선 녹화

## 제19회 전남 장성

# 홍길동 축제

황룡강 봄꽃 상춘객 맞이 5.18 ~ 27(10일간)

주최 Jangseong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후원 전남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